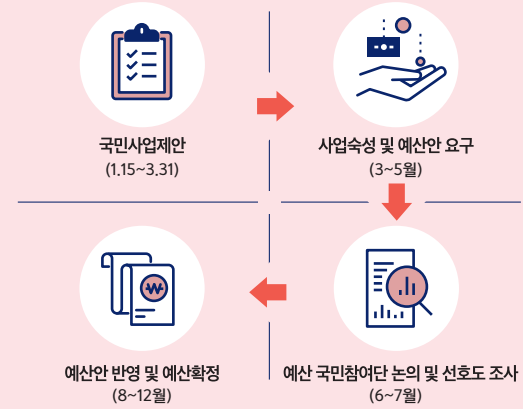


국민참여예산

국민이 사업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연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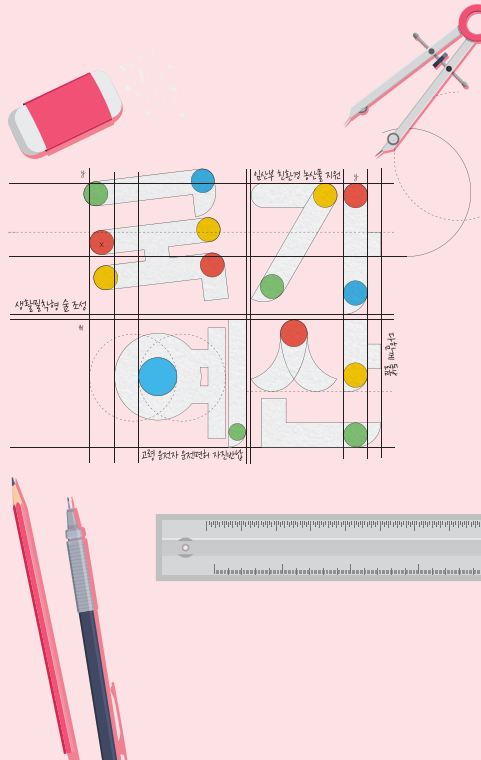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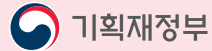
올 한 해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국민참여예산에 반영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까요?
바로 지금! 국가예산 디자이너가 되어보세요.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 예산을 디자인하고 싶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고고!
국가 예산을 디자인하고 싶다면, **국민참여예산**으로 고고!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검색창에 '국민참여예산'을 입력하세요!

국민참여예산



전기로 만드는 행복 **서북공간** Korea Western Power Magazine Vol.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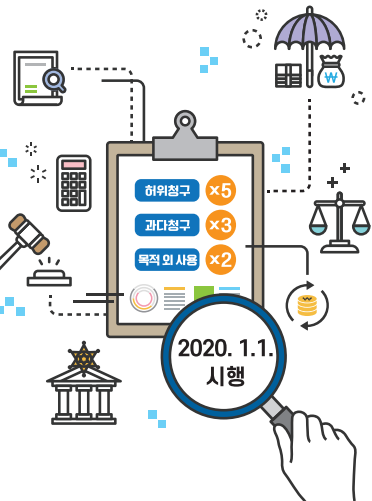


전기로 만드는 행복 **서북공간** Korea Western Power Magazine
March + April 2020

소중한 나랏돈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공공재정환수법

신고상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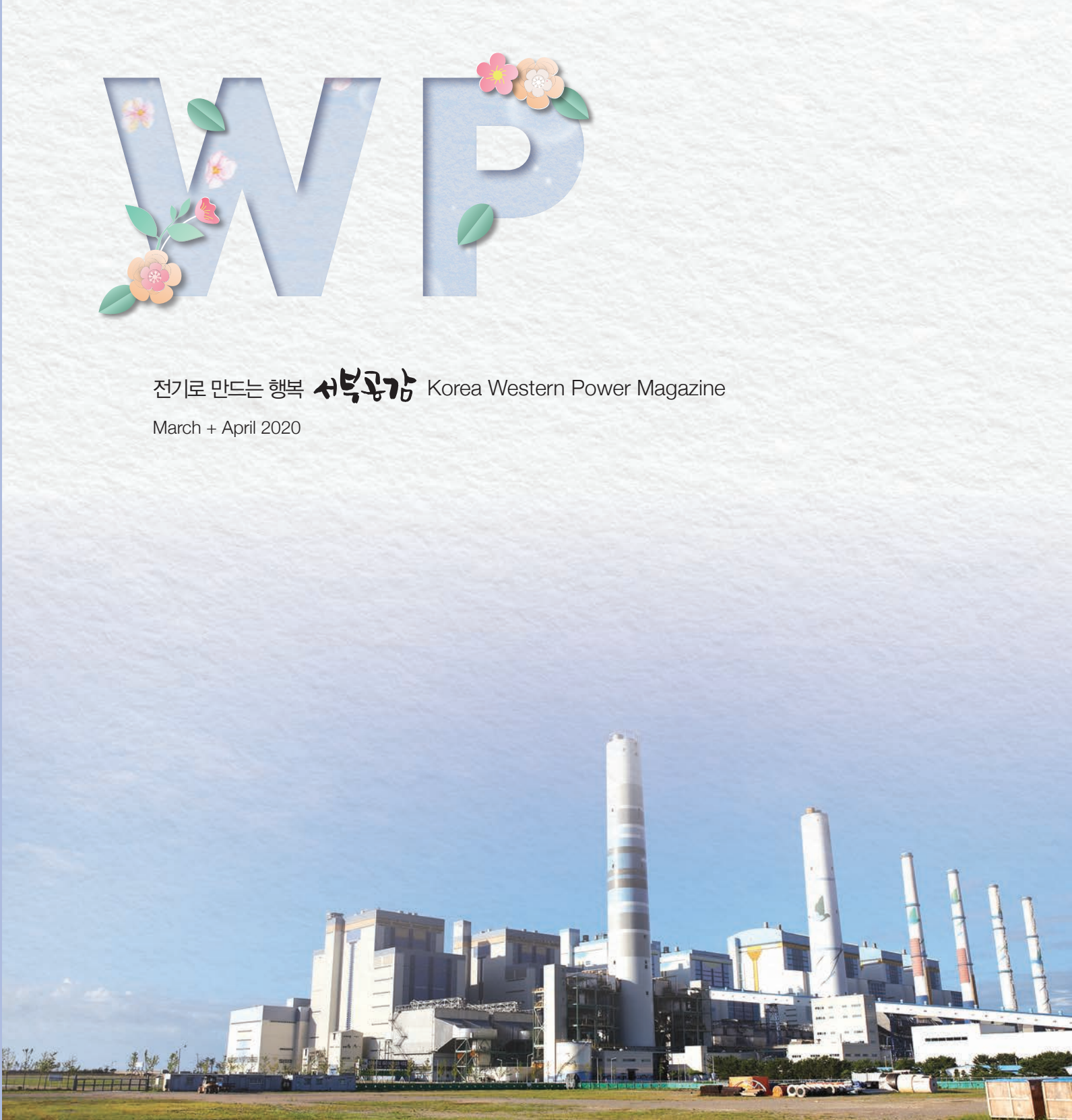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 고객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부정이익이 환수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면 포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로 만드는 행복 **서북공간** Korea Western Power Magazine Vol. 94



추운 겨울 다 지나고 꽃필 차례가 그대 앞에 있다
겨우내 숨죽이던 대지에 포근한 온기가 닿아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곳에 꽃잎을 흩뿌리고
푸른 이파리 녹아 선명하게 시야를 메운다



전 기 로 만 드 는 행 복

서북공감

Korea Western Power Magazine



한국서부발전 사보 서북공감 2020년 3+4월호(통권 제94호)

발행인 김병숙 / 편집인 임정래

기획 정래현, 윤하림, 김예지 / 발행일 2020년 3월 15일

발행처 한국서부발전(주) www.iwest.co.kr

홍보부(041-400-1298)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32140)

기획·디자인 (주)에이치그라운드 02-2635-3068 / 사진 스튜디오 집

인쇄 (사)한국장애인상생복지회 02-2644-2911

※ 본 사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사회적기업에서 인쇄·발간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 재생종이를 사용합니다.

WP & ISSUE

- 04 Intro
- 06 Movement | 서해안 시대의 중심에서 에너지 산업을 움직이다_태안발전본부
- 10 Output | 내실과 공익을 모두 잡으며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는 한국서부발전
- 12 Dream | 책 안에 펼쳐지는 꿈 우리 안에 피어나는 희망_위피 드림북 희망나눔 도서관
- 16 Time slip | 에너지家에서 서북공감까지, 10년 전 오늘 WP 타임슬립

NOW AND HERE

- 20 Info Changemaker |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한국서부발전이 앞장서다
- 24 ExpertChangemaker | 사회혁신,체인지메이커가완성한다_운영심사위원장 송실사이버대학교 정무성 총장
- 28 Interview Changemaker | 2019 체인지메이커 시상식 수상자 인터뷰

FOR SOUL AND BODY

- 38 Intro
- 40 서부인 신입일기 | 한국서부발전 신입사원의 나날_군산발전본부 발전기술실 발전부 최현준 사원
- 42 Find The Muse | 콜리다, 홀리다, 거닐다 예술가가 사랑한 도시
- 44 Cinema Therapy | 수치심에 대하여_영화 <굿 윌 헌팅>
- 48 잘있니, 그 시절 | 문방구 앞 우리들의 행복한 시절
- 50 트렌드 2020 | 1인 미디어 시대 '인플루언서'가 온다
- 52 열정, 불을 붙이다 | 그렇게 그들은 유니콘이 되었다_독일 배달업 '딜리버리 히어로' 창업자 니클라스 외스트버그
- 54 세계는 휴식 중 | 고요한 서사를 위한 세계의 숲 탐험
- 55 지속가능 프로젝트 | 친환경 사무용품으로 꾸미는 그린오피스
- 56 펫츠고 | 반려견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 57 나도 모르間 | 나도 모르는 사이 다이어트를 망치는 습관

KNOCK-ON WP

- 58 WIN-WIN | 함께하는 희망태양광 발전소 지역에 희망을, 기업에 희망을!_(주)코스텍
- 60 WP NEWS | 한국서부발전 뉴스
- 63 WP EVENT

06 Movement

서해안 시대의 중심에서 에너지 산업을 움직이다_태안발전본부

10 Output

내실과 공익을 모두 잡으며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는 한국서부발전

12 Dream

책 안에 펼쳐지는 꿈 우리 안에 피어나는 희망_위피 드림북 희망나눔 도서관

16 Time slip

에너지家에서 서부공감까지, 10년 전 오늘 WP 타임슬립

20 Info Changemaker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한국서부발전이 앞장서다

24 Expert Changemaker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가 완성한다_운영심사위원장 송실사이버대학교
정무성 총장

28 Interview Changemaker

2019 체인지메이커 시상식 수상자 인터뷰



WP&ISSUE ——— NOW AND HERE

서해안 시대의 중심에서 에너지 산업을 움직인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국서부발전은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며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태안, 평택, 서인천, 군산 등 4개 발전단지에 11,333MW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한국서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태안발전본부를 찾아가 본다.

태안발전본부 발전현황



지역과 상생하며 깨끗한 전기를 만드는 태안발전본부

태안발전본부는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에너지 주역이다. 현재 460만㎡의 부지 위에 환경친화적인 발전소의 면모를 갖추며 깨끗한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8월 IGCC, 2017년 6월 제10호기가 완공되면서 6,465.8MW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대규모 발전단지로 도약하게 됐다. 이는 한국서부발전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약 58%에 해당한다. 태안발전본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이때 ‘환경보전 없이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발전소 운영방침을 정해 대형 석탄화력발전소 최초로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환경 가치를 변하지 않는 기업이념으로 추구하고 국토환경과 지역 환경 발전을 위한 3대 핵심 환경경영 목표를 설정해 환경친화적 발전소 구현을 통한 인간, 기업, 환경이 중심 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기환경오염 방지시설로는 배연탈황설비, 배연탈질설비, 전기집진기, 비산먼지 방지설비가 설치돼 있다. 수질환경을 위해서는 탈황폐수처리설비, 총질소 제거설비, 중수도설비, 종합폐수처리설비 등이 갖춰져 있다. 또한, 발전소 외관을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함으로써 전국 화력발전소 중 최초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과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을 획득했다.



환경보전활동



발전소 최초 ISO 14001 인증 획득(*99.12)

국제기준 환경경영체제 운영으로 친환경 발전소 구현

1사 1연안 가꾸기 환경 정화 활동 전개

발전소 주변 솔향기길 ‘생태문화 지킴이’ 행사 시행

태안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화활동 시행(매월)

발전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 재순환(2018)

석탄회 : 콘크리트 혼화재 103만 톤/년, 수익 170억 원

탈황석고 : 석고보드 원료 39만 톤/년 (건식기준), 수익 60억 원

태안발전본부, 지역경제 활성화·복지 증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태안발전본부는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려 한다. 발전소 건설과 더불어 시작된 그간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인근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향상 및 주변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등 지역 발전에 공헌했으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태안발전본부로 거듭나고 있다. 앞으로도 경쟁 시대에 걸맞은 훌륭한 발전소 경영을 실현해 경제와 국민 생활에 기여하는 좋은 발전소 구축에 전직원이 노력할 것이다.

66 에너지로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는 행복파트너

99

한국서부발전이 2017년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수립한 사회공헌 비전이다. 한국서부발전은 ‘행복에너지, 정다운 이웃’을 만들어가겠다는 신념으로 건강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슬로건 아래 태안발전본부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태안공영버스터미널, 문화예술회관 등을 건설하는데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역 숙원사업으로 앞으로도 태안 발전의 디딤돌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 밖의 일반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태안발전본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육영사업이다. 육영사업은 장학금 지급 및 장학회 운영, 교육기자재 지원, 예체능부 육성, 자율학습관 운영,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태안발전본부는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 자

립을 위한 행복한 구둑방과 행복충전 푸드 트레일러가 대표적이다. 태안발전본부는 태안지역자활센터에 구둑방과 푸드 트레일러 초기 사업비로 4,300만 원을 기부하였고, 본부 내 유휴 장소를 무상 임대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했다. 또한, 본부직원 및 협력사 직원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착한 소비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지역지원사업



구분	지원내용	금액
기본지원사업	육영사업 등 (태안발전본부 350억 원), 공공사업 (태안군 722억 원)	1,072억 원
특별지원사업	만대녹색체험마을 토지구입, 원북면 공동작목반 농자재구입 등	1,231억 원
	지원 누계(1990~2018년)	2,303억 원

내실과 공익을 모두 잡으며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는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은 유일하게 군(郡) 단위로 본사를 이전한 발전공기업이다. 경영은 이익 창출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신념 아래에 이윤과 공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스마트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내외 태양광 사업 진출을 통한 재생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한국서부발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해외 선진국에 1GW 규모의 태양광 사업 진출을 목표로 삼고 친환경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2018년 기준 태양 빛을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태양광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108GW를 달성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약 17%가 증가된 140GW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증가세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비약적 기술발전을 바탕으로 기존 화력발전 원가와도 경쟁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하며 이제는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핵심 전원으로 부상했다.

한국서부발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사업추진 경험과 우수 기술력을 가지고 해외 선진국으로 태양광 발전산업의 전략적 확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설계·시공·운영 단계별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 친환경 대책 마련, 주민 수용성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선결과제를 경험하고 관련 기술을 축적해 동남아시아를 포함해 호주, 미국, 대만 등 해외 선진국으로의 태양광 시장 도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와 같은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Solar Power 1GW Project'를 달성하는 것이다.



한국서부발전은 건설관리(CM), 발전소 운영 및 정비(O&M), 기술지원(TS)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국내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할 방안 도출을 통해 정부의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와 민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더불어 배너튼 태양광 사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호주 동남부를 중심으로 총 560MW의 태양광 사업개발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작년 10월에는 칠레 태양광 개발 및 국내기업 동반 진출을 위한 한국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지 개발사와 함께 3사 공동사업개발 MOU를 체결했으며 유럽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태양광 사업개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5% 달성을 목표로 하는 '신재생 3025 로드맵'도 수립했다. 2030년까지 설비용량을 6,112MW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511MW는 연료전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노동자와의 소통 채널을 활성화한 현장밀착형 안전보건관리체계

한국서부발전은 분야별 실무자와 노동조합 위원들을 대상으로 '2020년 안전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설명회는 한국서부발전의 안전보건관리 주요 추진 방향을 설정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울었던 노력을 공유했다. 또한 발전소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수립된 안전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올해 안전 기본계획에서 '함께하는 안전경영으로 서부발전의 미래를 창출한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작업장 위해요소 개선, 안전 경영체계 구축,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 강화, 안전 인식·문화 개선의 4대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안전·보건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안전정보 전산화, 석탄화력발전소 화재 및 분진폭발 예방체계 구축, 현장 근로자 편의를 고려한 현장 건강관리실 추가설치, 신개념 안전기법 기반 안전문화 증진 시스템 구축, 숨은 위험 찾기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확대를 통한 일용직 등 안전취약계층 교육지원 등의 세부 과제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앞으로도 회사의 안전보건 정책에 대해 손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며 노·사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모든 근로자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 무결점의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회적 가치 창출형 지역 상생 사업

한국서부발전은 주변 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사업 추진으로 지역 상생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농어촌마을 재생사업, 지역특산품 구입, 장애인 복지, 교육환경 등 다양한 측면의 지역 니즈를 반영한 특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농어촌마을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마을재생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바닷가에 버려져 환경오염을 유발하던 폐그물을 활용해 전등과 가방 등을 생산하는 재활용 사업과 마을 안전 및 경관개선, 전통복원, 에너지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굴 껍데기를 발전소 미세먼지 제거용 탈황원료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사업화하는 한편, 발전소 배출 온배수를 활용한 한국형 스마트팜 구축사업 등을 추진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충남 화훼생산량의 30%를 점유하며 꽃의 도시란 지역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태안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WP 소셜 플라워 사업'을 추진, 화훼농가의 판로개척을 지원함과 더불어 이러한 화훼농가에서 재배된 꽃을 활용하여 노인복지관의 원예치료 수업을 병행하는 다목적 사회공헌사업도 추진 중이다. 복지수혜의 기회가 적은 농촌 거주 장애인을 위해 나눔카페 '비 마이 프렌드' 사업과 세차장 사업을 추진, 각각 바리스타와 세차원을 지역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 장애인 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를 지원하고, 여기서 생산된 안전장갑 등 발전소 구매빈도가 높은 제품을 한국서부발전이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사회공헌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농어업 중심의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역사회 특성에 맞춰 시니어 행복드림 일자리 창출사업과 시니어 동고동락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추진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서부발전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서부 위피스쿨, 서부 꿈너머 꿈 진로 멘토링, 전기교실, 신바람 에너지스쿨, 서부 위피드림북 등 한국서부발전 고유의 다양한 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책 안에 펼쳐지는 꿈 우리 안에 피어나는 희망

위피 드림북 희망나눔 도서관

한국서부발전은 지역사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위피 드림북 희망나눔 도서관'을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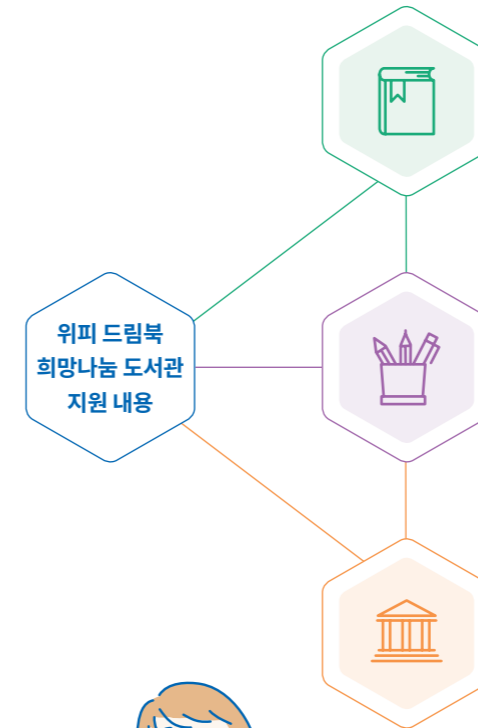
태안지역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을 개선하고 도서 및 학습 기자재 보강과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위피 드림북 희망나눔 도서관'을 알아본다.



태안 청소년이 꿈을 가꾸가는 공간

한국서부발전은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공헌사업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복지 소외 계층 후원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한국서부발전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태안군 내 지역아동센터들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아동 정서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 산하 태안군사회복지협의회에 약 2억 원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서부 위피 드림북 희망나눔 사업에도 활용되고 있다. 위피 드림북 희망나눔 사업은 태안군 내 8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지역 아동이 책을 통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독서 환경을 지원하는 것이다. 맞춤형 인테리어 공사를 제공하여 노후공간을 리모델링하고 역사, 과학,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과 PC, 책상 등 교육 기자재를 지원한다. 한국서부발전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포함한 지역의 저소득 아동,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환경 속에서 책을 통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미래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1 학습환경 개선

- 지원대상 및 규모 : 태안군 내 지역아동센터 8개소 중
- 지원내용
 - 프로그램 특성이 드러나도록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한 공간 시공
 - 아동·청소년 맞춤형 도서 1,000권
 - 도서관리 DB프로그램 및 관리용 일체형 PC

2 교육기자재 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 : 태안군 내 지역아동센터 8개소 전체
- 지원내용 : 운영 및 아동 학습지도에 필수적인 교육기자재

3 문화체험

- 지원대상 및 규모 : 태안군 내 지역아동센터 8개소 182명 전체
- 지원내용
 - 금·토(1박 2일) 일정으로 4회 진행
 - 발전소 견학, 전기원리 특강, 문화 탐방, 레크리에이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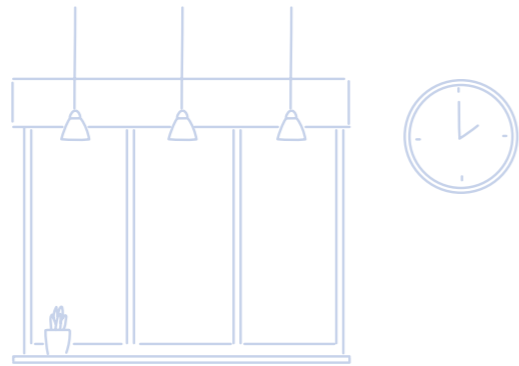


위피 드림북 희망나눔 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한국서부발전은 2011년부터 ‘서부 꿈나무 디딤 씨앗 통장 후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취약계층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매년 4,800만 원을 후원하고,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적립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의 학자금 마련, 창업 지원, 주거비 마련, 자격증 및 취업훈련 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방학 기간에 성적이 우수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대학생들을 멘토로 선발, 태안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진로, 정서 지원 멘토링을 시행하는 서부발전의 대표 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인, ‘서부 위피스쿨 클래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도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부발전의 국가품질명장을 매칭하여 실질적 진로교육을 펼치는 ‘서부 꿈너머꿈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중학생들을 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신바람 에너지스쿨’, 문화예술동아리를 후원하는 ‘꿈 더하고 행복 나누는 위피 감성발전소 사업’ 등 다양한 교육나눔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위피 드림북 희망나눔 도서관 INFO

센터명	주소	연락처
드림지역아동센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재경미길 8-5	041-672-0323
태안지역아동센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대지길 2	041-672-5479
솔로몬지역아동센터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길 185-1	041-673-5475
영항지역아동센터	충남 태안군 고남면 안면대로 4487	041-673-1772
어울림지역아동센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터널길 25-17	041-673-1983
늘푸른지역아동센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도내1길 86-5	041-673-9532
잘자람지역아동센터	개소 예정	
해피투게더지역아동센터		



INTERVIEW



어울림지역아동센터 김종덕 센터장



태안군사회복지협의회 윤홍모 사무국장

1) 어울림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늘푸른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종덕 목사입니다. 태안의 아동, 청소년에게 학습·정서·영양·문화·체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 위피 드림북 희망나눔 도서관(이하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도서관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태안의 아동,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습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외부 초빙 선생님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과 일정 시간 독서 후 함께 독서록을 써 보기도 하는 등 책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3) 운영하시며 뿌듯했던 점이 있으셨나요?

아이들이 센터에 오자마자 신발 벗고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아이들이 책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집중하는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특히 방과 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아이들에게 의지할 곳이 되어주는 것 같아 제 마음 또한 편하기도 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아이가 이곳을 찾아왔으면 합니다.

4) 한국서부발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한국서부발전에서 소중한 공간을 마련해주어 굉장히 감사합니다. 덕분에 센터에 필요한 다양한 기자재들을 지원받아 아이들이 더욱 윤택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꾸준히 지속되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1) 윤홍모 사무국장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안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윤홍모입니다. 태안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 한국서부발전과 도서관을 함께 꾸리게 된 계기가 있나요?

태안군에는 8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지원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를 보다 활성화하고 아동들을 제대로 보듬기 위해서 도서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3) 한국서부발전에서는 도서관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본 사업은 세 가지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첫 번째는 약 천여 권의 도서를 지원해줌으로써 아이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고가 풍부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교육 기자재를 통해 아이들이 쉽고 유익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해주어 보다 열린 공간에서의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4) 한국서부발전의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학령인구 감소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지방 교육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합니다. 특히 보육·교육 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한 가운데 태안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한국서부발전의 지원 아래 양질의 교육환경 아래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에너지家에서 서부공감까지 10년 전 오늘, WP 타임슬립

2010년 <에너지家> 3+4월호를 돌아보다

2010년은 한국 스포츠의 전성기이자 피쳐폰 시대가 종식되고 스마트폰 시대를 여는 전환기였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서부발전의 사보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며 성장해왔다. 2020년 현재의 사보 <서부공감>이 오기까지, 10년 전 한국서부발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 준 <에너지家>를 들여다본다.



01



에너지家

서부발전이 만들어가는 에너지家

<에너지家>의 3+4월호는 싱그러운 이미지의 표지가 인상적이다. 투명한 물줄기가 상쾌하고 초록의 봄 잎이 푸르름을 한껏 뽐내고 있다. 완연한 봄을 알리는 노란 개나리와 더 선명한 수선화 그리고 생강나무 꽃의 향기가 어디선가 피어오르는 것만 같다. 우리 함께 <에너지家>를 그리고 봄을 열어보자. 당신은 10년 전 봄을 만끽하고 있는 한국서부 발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2010 그때

나눔이 빛은 인연 - 떡국으로 전하는 따뜻한 나눔 이야기

한국서부발전 임직원들은 설날을 이틀 앞둔 날 아침, 까리따스종합사회복지관에 모여 떡국을 비롯해 부침개, 나물, 떡, 사과, 굴 등 명절 음식을 손수 준비했다. 명절을 앞두고 독거노인, 저소득계층, 노숙자 등 자칫 소외되기 쉬운 대상자들에게 설날의 따뜻함과 이웃의 정을 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다. 특히 이날은 나눔활동을 마친 후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각기 맡은 곳에서 겪은 어려움과 보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더욱 의미 있었다.

2020 지금

2020년에도 한국서부발전은 임직원들의 떡국나눔 봉사활동으로 한해를 시작했다. 1월 2일, 시무식을 마친 뒤 임직원 30여 명이 태안군 노인복지관을 찾아 지역 어르신 및 독거노인 분들께 직접 떡국을 끓여 대접한 것이다. 급식재료 준비에서부터 배식 및 뒷정리까지 술선수범한 임직원들은 식사를 마치신 어르신들께 추운 겨울을 든든하게 보낼 수 있도록 희망꾸러기(식품키트상자, 양말 등)도 선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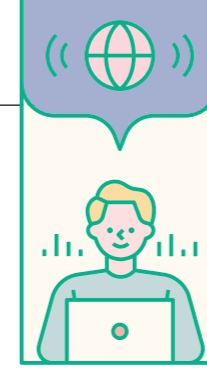
02



2010 그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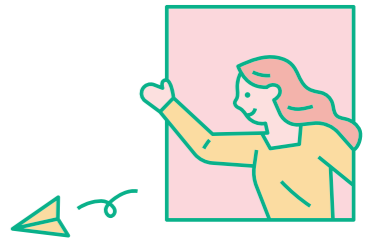
WP NEWS - 태안 제7호기 장기 무고장운전 달성

태안발전본부의 태안화력 7호기가 2010년 1월 28일부로 장기 무고장 운전(LTTF, 1만5천 시간)을 달성하였다. 이번 무고장운전은 태안 7호기가 2008년 2월 27일부터 2010년 1월 28일까지(701일) 계획 예방정비 기간을 제외한 625일(1만 5천 시간) 동안 한 건의 고장 정지 없이 전기를 생산한 것이다.



2020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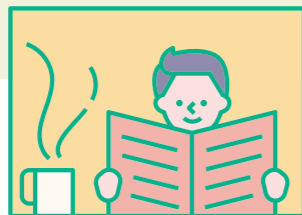
한국서부발전은 현재 운용 중인 태양광 및 ESS 설비가 단 한 번의 화재 사고와 고장 정지 없이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이 운영 중인 ESS 설비의 총 용량은 현재 총 21.75MW로 설비 운영부서와 안전 부서 간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상시점검과 사전예방 활동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조직 차원에서 화재 및 고장에 대비한 지역별 전담 운영부서를 배치하고 안전전문기관과 협업해 정기적으로 설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2010 그때

WP NEWS - 아이티 지진 참사 긴급구호 성금 전달

한국서부발전 사회봉사단은 2010년 2월 9일 MBN(매일경제TV)에서 '아이티 지진참사 재해복구와 이재민구호를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성금 전달은 최악의 지진으로 인해 구호 장비와 의료진 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아이티와 아픔을 함께하기 위한 것이다.



2020 지금

한국서부발전은 '행복에너지, 정다운 이웃'이라는 슬로건 아래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예로 사회복지, 환경보전, 재난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2018년 댐 붕괴 사고가 발생한 라오스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이외에도 2020년에도 국내외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03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한국서부발전이 앞장서다

Changemaker



2019 체인지메이커 시상식

제1회 ‘대한민국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시상식’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모델 발굴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사회 전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한 혁신활동가를 발굴, 격려하는 체인지메이커 시상식을 알아본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숨은 주역을 조명하다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령화, 다문화, 환경, 에너지, 도시재생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어려움은 국가 혼자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와 협치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 왔다. 대다수의 기업 역시 효율성과 시장원리 중심으로 운영해 왔지만 현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 운영의 기본원리로 삼고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실현을 주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 또한 변화된 가치확산에 공공기관이 우선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 역시 이

를 외면하지 않고 대국민 인식개선 및 이해도 증진을 위해 혁신모델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2019 대한민국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시상’ 공모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공공기관인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적 가치 모델 발굴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특히 헌신·노력하는 활동가를 발굴 및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혁신모델을 발굴하고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공익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힘을 더하고자 한다.

체인지메이커 선정 분야

분야	주요 내용
 경제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 및 육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지원 및 협업한 자
 문화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시도로 문화·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성장에 기여한 자 생활문화 보급 등 혁신활동을 통하여 문화적·사회적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 자(주민문화 공동체 활동 확산 기여 등)
 환경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시도로 환경보호·관리·환경난제(미세먼지, 가뭄, 녹조 등) 해결 등 환경 패러다임 혁신에 기여한 자
 복지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증진에 기여한 자
 교육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의 창의적 혁신을 선도하여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한 자



세상을 밝히는 ‘체인지메이커’에게 박수를

‘2019 대한민국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시상식은 한국서부발전이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며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후원했다. 체인지메이커상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혁신 활동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활동가를 발굴·시상한다. 경제·문화·환경·복지·교육 부문에서 사회혁신 활동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이를 통해 나눔 정신과 봉사 정신을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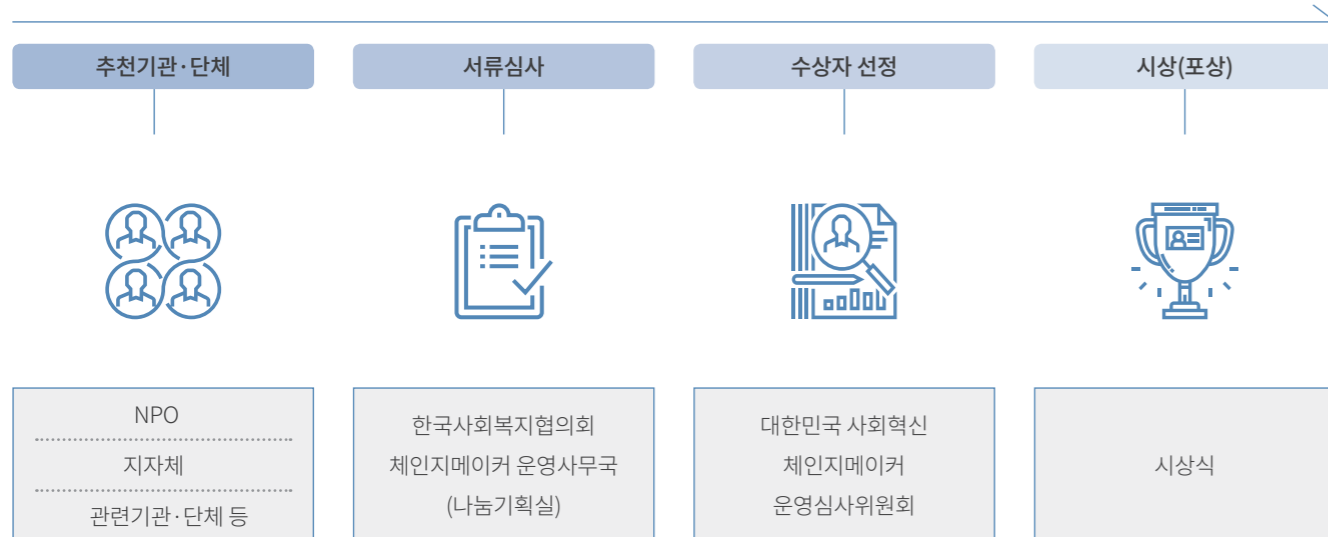
2019년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공모한 ‘2019 대한민국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공모를 했다. 이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들에게 1,000만 원의 상금과 표창장 및 금메달(300만 원 상당)이 수여됐고, 2020년에 사회혁신 선진해외연수 기회도 주어진다.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 첫 주인공으로 이경림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상임이사,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고은설 별의별 대표, 홍동우 공장공장 대표, 계효석 엘에이알 대표가 선정됐다.

2019년에 시작을 알린 ‘대한민국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상’이 지속해서 국민의 호응을 얻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한 공동체 사회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서부발전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세상 곳곳에서 사회를 좀 더 살기 좋게 바꾸기 위해 묵묵히 일하는 체인지메이커를 발굴하여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한국서부발전(주) 김병숙 사장과 (주)공장공장 홍동우 대표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시상 추진절차



체인지메이커 수상자

분야	성명	소속	활동내용 및 주요성과
 경제혁신	홍동우 대표	(주)공장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사망 원인 1위인 자살률, 실업률 등의 청년 문제와 지역 청년 인구 감소의 문제점을 반영한 관촬아 마을 기획, 운영 • 관촬아 마을 : 누구나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함께 살아가는 혁신 공동체
 문화혁신	고은설 대표	아트클러스터 별의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주도의 도시재생 차원에서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실시, 동네 주민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유공간 조성 • 2018 사회혁신 리빙랩, 2019 사회혁신 기획협력사업 참여를 통한 동네 공동체 프로그램 성공적 추진
 환경혁신	계효석 대표	(주)엘에이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려지는 자투리 가죽 재활용과 3년간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면화 안감으로 만든 신발, 버려지는 코르크나무 껍질과 고무나무 원액을 활용하여 개발한 깔창 등 100% 친환경 신발제조 • 보육원과 MOU체결로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아이들의 심리치료와 정서 회복 지원을 위해 기부
 복지혁신	이경림 상임이사	(사)아동복지 실천회 세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사회 아동의 사각지대인 수용자(범죄자) 자녀와 가족을 발굴, 사회복지실천방법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재까지 약 200여 명을 지원하였고, 인권 옹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 2017년 국가최초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수용자 자녀 현황 국가통계 구축
 복지혁신	김미영 대표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당관리에 필요한 효과적인 의료기기(연속혈당측정기)를 해외에서 도입, 국내 허가 및 자가 사용 의료기기 관련 법 개정을 추진 • 1형당뇨 어린이의 어린이집 우선 입학과 인슐린 주사 대행에 대한 법안을 추진 • 글루카곤 투약 관련 학교보건법 등을 추진, 1형당뇨 학생들이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가 완성한다

송실사이버대학교 정무성 총장



한국서부발전 주최, 제1회 체인지메이커 시상식에서 운영심사위원장을 맡은 정무성 송실사이버대 총장으로부터 체인지메이커 시상식을 필두로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과 과제에 대해 들어본다.

혁신적 지역복지체계 구축 필요

한국은 경제성장의 결과로 국민의 다수가 높은 삶의 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소외계층은 극도의 박탈감을 느끼는 양극화 시대를 맞고 있다. GDP로 보면 세계 10위권대의 경제 대국이지만, 자살률, 빈곤율, 행복지수, 사회갈등지수 등 사회지표는 세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지나친 경쟁과 사

회적 양극화로 자살률 세계 1위의 오명을 갖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위기의 고통이 저학력, 저기능,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사회적 불평등과 그에 따른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후유증으로 안 그래도 유난히 소외계층이 많은데 경제위기는 사회적 양극화

66

복지국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제도를 보다 내실화하여 복지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99

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경제난과 함께 지금과 같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 되면 소외계층의 인간 존엄성 훼손과 함께 사회적 분노가 고조되어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 고조로 경제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포용적 복지제도를 통해 사회통합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시점이다.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이에 대부분 선진사회에서 복지부문은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전 국민이 복지의 대상자라는 측면에서 가장 큰 사회제도이다. 한국도 복지국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제도를 보다 내실화하여 복지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사회복지 모형은 그 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형성된다.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공공부문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유럽, 프랑스, 독일 등의 전통적 복지국가들은 사회복지공공지출이 GDP대비 30%전후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나라같이 작은 정부를 유지하는 나라들은 북유럽처럼 공공부문 중심의 복지국가를 창출하기 어렵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은 OECD 평균이하의 공공복지지출을 하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은 유럽 복지국가 국민들 못지않게 높은 수준이다. 이들 국가들이 높지 않은 공공복지지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복지수준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민간부문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지역복지활동이 다양하고, 기업 및 시민들의 기부문화가 활발하여 부족한 공공부문을 보완하고 있다. 나아가서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혁신성도 뛰어나다.



△ 송실사이버대 정무성 총장

한국의 현시점에서 북유럽의 공공복지중심의 모델을 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특히, 기업과 종교계)을 중심으로 지역복지를 활성화시킨 나라들(캐나다, 호주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인구 고령화와 양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상당한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에서 지자체간 복지편차도 심화된 전망이다. 이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민간부문의 복지활동들은 혁신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지역복지 혁신을 위한 과제

현대 사회문제는 정치, 경제, 인구사회변화,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이고 교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거 성장이 고용을 창출하고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켰던 시절을 지나, 성장-고용-복지의 순환 고리가 단절된 지점에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고실업 문제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면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점차 사라진다.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들이 1인당 GDP가 2차 세계대전 이후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사람들이 그만큼 행복해지지는 않았다. 성장 중심의 경제가 오히려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지나친 소비로 환경문제는 심각해지고, 부의 집중으로 불평등의 정도가 악화되면서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복지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복지와 고용의 접점을 만들어 가는 구조에 관심을 갖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사회적기업은 기업의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고용창출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패는 지역의 민간자원을 얼마나 동원하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인지메이커(change maker)가 얼마나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회혁신을 통한 지역 내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체의 범위는 개인, 마을공동체, 시민사회 등 민간 비영리섹터에 이르기까지 넓게 확장되고 있다. 체인지메이커는 다양한 영역간의 연대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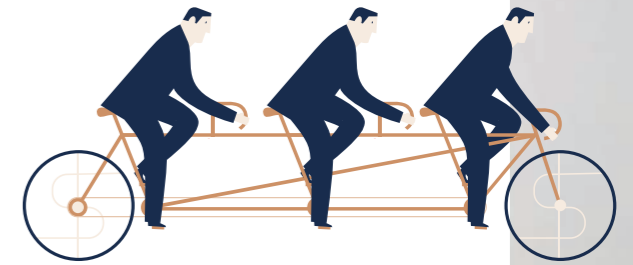
이러한 체인지메이커의 역량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사회경제조직의 경쟁우위 확보와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 경영을 이루는 능력을 포함한다. 즉, 조직의 성장성, 수익성, 경쟁우위성, 지속성 등을 향상시키는 역량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체인지메이커는 구성원간의 협력적 행동을 이끌어내고, 사회적 가치를 파트너 및 지역사회와 공유하면서 조직의 성과를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역복지 혁신을 위해서는 사회적가치를 갖춘 체인지메이커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창조적 파괴’를 주장한 슈페터(Schumpeter)의 말처럼 기회를 추구하며 자원을 새롭게 결합하는 방식의 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사회적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즉, 체인지메이커는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혁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다.



체인지메이커 선발의 의미

사회통합을 이루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사회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패러다임도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자선적이고 시혜적인 복지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역량의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지역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내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고, 지역사회 내 여러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체인지메이커이다.

체인지메이커라는 용어는 사회적기업가와 동일시 되기도 하는데 미국의 사회적기업의 대부라 할 수 있는 빌 드레이튼(Bill Drayton)의 아쇼카재단(www.ashoka.org)을 통해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이 재단은 기업의 사회공헌기금을 사회적기업가(Entrepreneurship)를 발굴 육성하는데 투자하였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혁신적 마인드를 갖춘 사회적기업가로부터 나온다는 이유에서이다. 드레이튼은 사회적기업가란 변화를 창조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기존의 시스템, 방식, 유형 및 문화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말한다 고 했다. “사회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업가 자질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들



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주변의 문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불평하거나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의 해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념에 따라 아쇼카 재단은 매년 ‘아쇼카 펠로우(Ashoka fellow)’라는 체인지메이커를 선정한다.

한국 기업으로서는 한국서부발전이 최초로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에 주목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경제, 문화, 환경, 복지, 교육 부문에서 사회혁신 활동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체인지메이커들에게 금메달과 상금 수여 및 해외연수를 통한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는 사회혁신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공익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단순 시상에 그치지 않고, 해외 네트워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사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서부발전의 창의적 사회공헌이 대한민국의 사회혁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계속 발굴될 체인지메이커들이 대한민국 사회혁신의 핵심인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관찰은 청년들의 꿈공장 관찰아 마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공장공장 홍동우 대표



청년들이 모여 쉬고, 꿈꾸고, 도전하는 공간

모두가 서울을 향할 때, 목포에는 '관찰아 마을'이라는 곳이 만들어졌다. 이곳은 문화기획사 '공장공장'을 주축으로 경쟁에 지친 청년들, 좌절한 청년들이 전국에서 이곳으로 모여 쉬고 꿈꾸며 도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18년 공장공장은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6주간 30명씩 두 차례의 관찰아 마을을 운영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참여자의 절반 가까이가 목포에 남았고 정부나 어떤 단체의 지원이 없는데도 서른 명 가까이 되는 청년들은 자생적인 공동체를 형성했다. 빈집이 있으니 청년이 와서 살게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청년들이 오고 싶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더니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우리의 꿈은 한량, 늘면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

관찰아마을에 모인 청년들은 크게 여행 사업, 마을 조성, 소식지 발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춘들과 전국 일주를 하는 '익스퍼루트', 누구나 머무를 기간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면 한량처럼 놀다 갈 수 있는 '한량유치원', 서울에서 목포까지 히치하이킹한 사람들을 위해 여는 '히치하이킹 페스티벌', 매 호 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매거진 섬', 청소년을 위한 '예비 실험주의자 학교' 등이 있다.



INTERVIEW

Q. 본인 소개 및 공장공장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공장공장은 한자로 빌 공(空)과 함께 공(共)을 씁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플랫폼을 구상한 끝에 지금의 공장공장이 출발하였습니다.

Q. 2019 체인지메이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A. 공장공장이 사회에 활력이 되고 있다는 확신 이면에 정말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옳다고 인정받은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대표님의 최종 꿈은 무엇인가요?

A. 목포에서 다양한 사연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공동체가 주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언젠서부터인가 공동체가 와해되고 개인의 삶 속에 파묻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사람이 공장공장을 통해 개인을 넘어 모든 공동체가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도시 안에서 '같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아트클러스터 별의별
고은설 대표



도시 공간의 다양성 인정하기

2014년 전주시에서 전북 구도청사 전면 철거 계획을 발표했을 때, 아트클러스터 별의별(이하 별의별)의 고은설 대표는 도시가 한 시대만을 역사와 전통으로 인정할 때 드러나는 아이러니를 목격했다. 역사는 흐르는 것이고 도시는 그 흐름을 담는 것인데, 버젓이 서 있는 근현대의 의미 있는 공간을 없애고 조선 시대를 이야기하는 발상이 의아했던 것. 이를 계기로 고은설 대표는 공동체와 지역 자산화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지역 문화컨설팅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별의별은 도시의 역사와 가치를 잘 담았는지, 다양한 사람과 취향이 잘 어우러지는지, 억지스러운 정책에 도시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는지, 우리 시대와 우리 이후의 시대 사람은 어떤 세상에 사는 것이 맞는지 지속적인 고민을 하며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함께'와 '따로'가 공존하는 코리빙 타운

별의별은 함께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획을 요구하는 욕구를 어떻게 하면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실험으로 기획되었다. 2019년에는 전주에서 한 달 살기와 일 년 살기&로컬 DIY 학교, 그리고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모임을 기획하면서 지역 공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고 있다. 별의별은 예술교육 콘텐츠와 커뮤니티 기획, 코리빙에 관한 사업화 연구를 진행하며 개인적 욕구의 사회적·문화적·예술적 발화 및 연결을 도모하는 커뮤니티, 그리고 '함께'와 '따로'가 공존할 수 있는 코리빙 타운 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INTERVIEW

Q. 본인 소개 및 아트클러스터 별의별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건축도시문화기획자 고은설입니다. 공간을 매개로 사람들을 이어주고 만나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별의별이라는 커뮤니티를 통해 원도심의 빈집을 재생해서 공간을 운영하거나 교육과 모임 등을 기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Q. 2019 체인지메이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A. 제게는 한 해 한 해가 항상 고비였고 자립과 지속성에 관해 끊임없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체인지메이커 수상으로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고 저 혼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에 주변의 힘이 모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얻은 깨달음은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체인지메이커 수상자로서 세상의 많은 연결점을 모으고 빛내는 역할을 지속하겠습니다.

Q. 대표님의 최종 꿈은 무엇인가요?

A. 법과 제도, 그리고 자본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사회관계 안전망을 만들면서 동시에 비즈니스로의 성공모델을 구현하고 싶습니다. 살고 싶은 동네, 어울리고 싶은 주민들, 아이들을 같이 키우고 함께 나이 들어가는 동네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좀 더 나은 경제·문화 수준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중심에 별의별의 커뮤니티 기획력이 자리를 잡아가며 완충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발걸음 착한 신발이 함께 합니다

(주)LAR 계효석 대표



자연과 사람을 둘러보며 성장하는 회사

주식회사 LAR은 Look Around의 약자로, 자연과 사람을 둘러보자는 다짐으로 출발한 친환경 패션 브랜드다. 친환경 소재의 신발을 만들고, 한 걸음을 팔 때마다 일정 금액을 보육원에 기부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다. 계효석 대표는 선교 활동을 하며 전성고아, 기근으로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그때 느꼈던 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자 LAR을 설립하게 되었다.

LAR 신발의 외피는 친환경 재활용 가죽이다. 소가죽을 사용하는 가방 업체나 가죽업체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가죽을 재생한다. 안감은 농약·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지에서 재배한 면화를 사용한다. 깔창은 코르크나무 껍질로 만든다. 한 마디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에코(Eco) 패션의 에코(Echo)를 기대하며

LAR은 기업의 설립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지 않다. 사람들이 평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하고 행동하지 못했던 것을 행동하게 하는 회사이다. 사회적, 환경적 목표와 미션이 뚜렷한 회사이지만 상품 자체가 충분히 기능적이고 매력적이다. 실제로 환경부 예비사회적기업 최초로 한국 3대 패션 편집숍에 모두 입점하였고 친환경 상품으로서 감도와 품질을 모두 인정받아 크라우드 펀딩에서 약 2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계효석 대표는 착한 제품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쁘고 편한 제품이 되어야 한다고 상품 개발에 힘써왔다. 좋은 제품을 팔아 더 많은 보육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INTERVIEW

Q. 본인 소개 및 LAR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LAR 대표 계효석입니다. 선교 활동하며 세상은 너무나 넓고 힘겹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LAR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LAR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보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회사입니다. 이를 위해 자연과 사람을 둘러볼 수 있도록 친환경 소재로 신발과 가방 등 패션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Q. 2019 체인지메이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A.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대표님들과 환경 운동가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수상한 것이 매우 부끄럽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면서 일반 소비자에게 충분히 대체될 수 있고 소비될 수 있는 친환경 상품을 만드는 한청년의 노력을 격려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을 통해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상자로 선정 해주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이 길을 꾸준히 걸어하겠습니다.

Q. 계효석 대표님의 최종 꿈은 무엇인가요?

A. 저는 운이 좋게도 세계 곳곳의 가장 부유한 사람도 만나보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도 만나보았습니다. 세상을 둘러보고 나서 저는 성공에 대한 정의를 '주위를 둘러보고 돌보는 것'이라고 다시 정의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절대적인 감사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 남을 돌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look around 하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임무를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수용자 자녀가 당당한 세상이 올 때까지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이경림 상임이사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아이들을 위하여

재소자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사회와 동떨어진 감옥으로 향한다. 그들의 가족은 사회에 남겨져 살아가지만 정작 이들의 삶은 창살 없는 감옥인 경우가 많다. 재소자가 감옥에 갇힌 뒤 남은 가족들은 경제적 빈곤 가정으로 내몰리거나 주변 사람들의 외면과 손가락질 대상으로 전락해 숨죽이며 살아간다. 신상이 공개돼 되돌리기 힘든 2차 피해를 경험하기도 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도(헌법 제13조 3항), 재소자 가족 중에는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보다 어쩌면 더욱 혹독한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경림 상임이사가 '세움'을 통해 뜻을 세운 이유도 그래서였다.

수감자 자녀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할 때

세움은 위기를 겪고 있는 수감자 자녀를 발굴하고, 집중 개입과 지원을 통해 수감자 자녀가 위기를 넘어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움, 틈움, 채움, 이음 총 네 가지 사업으로 구분되며 각 사업별로 전문가 및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배움'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장학금을 지원한다. '틈움'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위기 가정의 필요에 따라 생활비를 지원하며 '채움'은 아동의 심리정서적, 상담을 지원한다. '이음'은 가족 접견에 필요한 접견비 지원, 동행접견, 차량 지원 통해 이루어진다.



INTERVIEW

Q. 본인 소개 및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하 세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의 상임이사 이경림입니다. 빈곤 아동, 가족을 위해 30년간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일해왔으며 현재는 수감자 자녀와 가족을 지원하는 세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움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미쳐서는 안 된다'는 슬로건 아래 '수감자 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2015년 3월 서울시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Q. 2019 체인지메이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A. 한국서부발전과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 같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단체의 특성상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차별이 있습니다. 왜 굳이 범죄자의 아이들까지 도와야 하나 모진 이야기를 건디며 신념을 지킨 것에 크나큰 칭찬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을 체인지하고, 세상도 체인지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Q. 이경림 상임이사님의 최종 꿈은 무엇인가요?

A. 처음에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없었던 불모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겨우 사회적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초석은 잘 마련되었고, 이제는 내실을 더욱더 튼튼히 다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먼 훗날 수용자 자녀가 성장하여 그와 같은 경험을 하는 아이들을 위해 멘토, 멘티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아이를 위해, 우리의 아이를 위해 세상을 바꾼 엄마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



커뮤니티에서 환우회로 조직되기까지

소아당뇨로도 알려진 1형 당뇨는 인슐린이 체내에서 전혀 생성되지 않는 당뇨병으로, 하루에 수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1형 당뇨 병을 앓고 있는 소아 청소년은 잘못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에 문제가 있어 당뇨에 걸린 것으로 오해받을 때가 많다. 그러나 1형 당뇨병은 건강하게 지내다 갑자기 발병할 때가 많아 급작스러운 발병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이하 환우회)의 김미영 대표의 자녀 또한 1형 당뇨병 환우이다. 자녀의 질환으로 시작된 김미영 대표의 고군분투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생각보다 많은 부모가 자녀의 질환으로 고민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정보와 플랫폼이 구축되지 않아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1형 당뇨를 가진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이들을 돕는 자원봉사자와 환우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모정이 일궈낸 기적, 계속되는 이야기

환우회는 1형 당뇨 환우의 몸과 마음이 더 큰 질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혈당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또래 또는 지역 모임, 가족 캠프 등을 통해 1형 당뇨인과 가족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다. 1형 당뇨인에게 필요한 혁신적인 의료기기 도입도 추진한다. 해외에서 어렵게 구매한 의료기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이 일로 인해 세상에 1형 당뇨인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의료기기법이 개정되었다. 현재 해당 의료기기는 국내에 허가, 판매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1형 당뇨인에게 필요한 법, 제도, 정책 등을 바꾸고 일반 대중에게는 1형 당뇨가 어떤 질환인지 알리기 위해 인식 개선 캠페인, 언론인터뷰, 방송, 토론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INTERVIEW

Q. 본인 소개 및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이하 환우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김미영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삶은 아이의 1형 당뇨로 인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절망만 하고 있을 수 없기에 1형 당뇨 성인들과 1형 당뇨 아이들의 부모가 모여 인터넷 기반의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2017년에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Q. 2019 체인지메이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A. 아이가 1형 당뇨를 진단받았을 때 세상에 홀로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만약 제 질환이었다면 현실에 안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질환이었기에 현실에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했지만 세상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알아봐 주신 한국서부발전이 체인지메이커라는 상을 통해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상을 받기까지 함께한 많은 가족 그리고 환우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Q. 김미영 대표님의 최종 꿈은 무엇인가요?

A. 'People with type 1 diabetes' 해외에서 1형 당뇨인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1형 당뇨는 잘 관리하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제 꿈은 1형 당뇨인이 환자가 아닌 단지 1형 당뇨를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형 당뇨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작은 목소리라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 40 **서부인 신입일기**
한국서부발전 신입사원의 나날_군산발전본부 발전기술실 발전부 최현준 사원
- 42 **Find The Muse**
콜리다, 홀리다, 거닐다 예술가가 사랑한 도시
- 44 **Cinema Therapy**
수치심에 대하여_영화 <굿 윌 헌팅>
- 48 **잘있니, 그 시절**
문방구 앞 우리들의 행복한 시절
- 50 **트렌드 2020**
1인 미디어 시대 '인플루언서'가 온다
- 52 **열정, 불을 붙이다**
그렇게 그들은 유니콘이 되었다_독일 배달앱 '딜리버리 히어로' 창업자 니콜라스 웨스트버그
- 54 **세계는 휴식 중**
고요한 서사를 위한 세계의 숲 탐험
- 55 **지속가능 프로젝트**
친환경 사무용품으로 꾸미는 그린오피스

- 56 **펫츠고**
반려견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 57 **나도 모르間**
나도 모르는 사이 다이어트를 망치는 습관
- 58 **WIN-WIN**
함께하는 희망태양광 발전소 지역에 희망을, 기업에 희망을!_(주)코스텍
- 60 **WP NEWS**
한국서부발전 뉴스
- 63 **WP EVENT**



FOR SOUL AND BODY ————— KNOCK-ON WP

한국서부발전 신입사원의 나날

군산발전본부 발전기술실 발전부 최현준 사원



끊임없는 노력으로 신입사원이 된 한국서부발전의 슈퍼루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낯선 업무로 당황하고 아는 것도 버벅대는 통에 자책하며 괴로워하기도 한다.

‘실수 없는 완벽한 사원’이 되길 꿈꾸며 이제 막 사회에 입문한 한국서부발전 신입사원의 하루를 들여다본다.

2020년 3월 2일 월요일



취업 준비를 할 때, 두터니에서 출입증을 꺼내 보안대를 통과하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상상이 현실이 되니 보안대를 통과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진다. 보안대에 태그를 하면 경쾌한 통과음이 울리고, 이 소리를 들으면 내가 한국서부발전의 신입직원이라는 것이 실감 난다. 사실 첫 출근길에는 출입구를 통과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하며 서 있기도 했다. 출입증이 승인되지 않아 보안대가 열리지 않았던 것인데 ‘혹시 출근지를 잘못 안 건가?’ 심장을 쫓아내며 우왕좌왕했던 기억이 난다. 다행히 지나가던 선배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

오늘도 평소라 다를없이 군산발전본부의 가스터빈과 배열회수보일러(HRS), 기동용 보일러 등 설비 문제가 없는지 살폈다. 내가 꼼꼼히 확인해야 고장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다. 막 직무를 인계받았을 때는 생전 처음 듣는 발전용어 때문에 외국에 온 기분이었다. 약어는 왜 이렇게 많은지 그야말로 용어라의 전쟁이었다. 그래서 선배님들께 귀찮은 질문도 많이 했는데, 선배님들 모두 잘 가르쳐 주셔서 오

히려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었다. 하루빨리 나의 후임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후임이 들어온다면 내가 겪어온 과정을 돌아보며 신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잘 기억해두었다가 알려주고 싶다.

오늘은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연락 관계망 때문에 작은 실수를 했다.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확인을 한 번 해야 했는데 의욕이 없세졌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전화 업무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오늘은 출근길에 한 번 있는 곳이 퇴근길이었다. 퇴근 후에는 그동안 별다른 은행 업무를 하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 취업 준비를 하고 취업 후에는 업무 적응을 하느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였다. 학창시절에는 축구, 게임, 진학 얘기가 주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각자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업무에 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내일은 어떤 설비에 대해 선배님께 여쭙보면 좋을까? 참, 월급일은 며칠 남았지? 손가락을 헤아리다 잠이 들었다. 오늘보다 더 성장한 내일의 나를 위하여, 굿나잇.



끌리다, 홀리다, 거닐다 예술가가 사랑한 도시

예술가는 도시를 창작 활동의 자양분으로 삼으며 도시 자체를 작품의 무대로 삼기도 한다. 예술가는 도시에서 창작욕을 불태우고, 예술가의 눈에 띈 도시는 예술 작품 속에 영원히 남는다. 자, 지금부터 예술가가 사랑한 도시로 여행을 떠나보자.



모네가 아로새긴 수련 그리고 지베르니

모네는 청년 시절 프랑스의 노르망디를 여행하던 중 우연히 지베르니를 발견했다. 그는 한눈에 지베르니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1883년 거처를 옮긴다. 모네는 사과나무 과수원이었던 지금의 집터와 그 옆에 딸린 분홍색 건물을 사들였다. 조경과 조예가 깊었던 모네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꽃과 나무를 심어 지금의 아름다운 ‘꽃의 정원’을 만들었다.

꽃의 정원은 화가인 동시에 원예가였던 모네가 직접 만들고 관리했는데, 8000㎡로 넓이가 상당하다. 정원에는 양귀비, 아네 모네, 수선화, 라일락, 튜립, 아이리스 등 이름을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꽃이 조화를 이루며 피어 있다. 어떻게 보면 관리가 필요 없어 보일 만큼 제멋대로 자란 것 같지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모네는 1890년 지베르니에 정착한 후, 사망할 때까지 30년 가까이 연못 위의 수련을 그리는 일에 몰두했다. 이 시기에 그는 직접 연못과 그가 좋아했던 일본식 다리, 정원 등을 가꾸면서 자연광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색채에 한껏 몰두했다. 그는 무려 2백 50여 편에 이르는 수련 그림을 끊임없이 그렸다.

파리의 오랑주리 미술관에 전시된 8연작의 수련을 그린 장소 지베르니, 과연 모네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며 현재의 희생을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정작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찰나의 빛을 캔버스에 옮긴 것처럼 지금 찰나의 순간에 감각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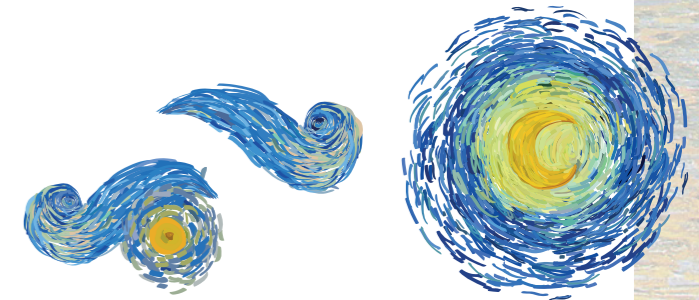
Claude Monet

Van Gogh

고흐가 수놓은 별밤 그리고 아를

남프랑스 아를은 고흐가 사랑한 마을이다. 1888년 2월, 고흐는 하얀 눈이 쌓인 아를에 도착했다. 고흐는 왜 이곳에 왔을까. 남프랑스 어딜 가더라도 아름다울 거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오던 중 폭설을 만나게 됐고, 기차가 더 움직일 수 없어 내린 곳이 아를이었다. 운명처럼 아를의 자연과 빛에 매료된 고흐는 매일같이 아를 구석구석을 산책하며 눈앞의 모든 것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를은 연중 대부분 황금빛 햇살이 내리쬐고, 다채로운 색을 띠었다. 고흐에게는 더욱 다양한 색채와 기법을 시도해 볼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 셈이다.

고흐가 아를에 머문 시간은 생의 마지막 1년여에 불과하지만 거의 200점의 그림을 그렸다. 밤의 카페 테라스,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 노란집 등 그의 대표작 대부분이 이 시기에 그려졌다는 사실도 의미가 크다. 아를을 걷다 보면 고흐의 그림이 프린트된 표지판을 흔하게 마주친다. 바로 그곳에서 그린 그림이란 뜻이다. 노란 테라스가 있는 카페도 고흐가 귀를 자른 뒤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정원도 그림 속 모습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의 호흡이 닿았던 공간 대부분이 캔버스 위에 담겼다. “이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던 그의 마지막 말을 곱씹으며, 그가 홀로 싸웠을 외로움과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아를에서 별밤을 떠올려 본다.



GOOD WILL HUNTING



수치심에 대하여

영화 굿 윌 헌팅(1997)

한 잔의 차를 우려내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을 마다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마음을 열어야 밝은 세상이 보인다.
트라우마를 가진 이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영화 <굿 윌 헌팅>은 마음은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당신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66

shame은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인지적 접근은 대개 효과가 별로 없다.
신체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환자를 부끄러움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것이다.

99

-오노 반 더 하트(네델란드의 심리학자)-



마음의 문을 닫고 숨어버린 당신에게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반복적인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방어벽이 생겨난다. 또 언제 어떻게 당할지, 누구에게 배신당할지 알 수가 없으니 세상 누구도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어려서부터 의심과 경계의 벽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마음의 벽은 누군가가 선의를 갖고 다가올 때 더욱 견고해진다. “정말 날 선의로 도우려 하는 건가? 혹시 나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그렇다. 간혹 상대방의 의도가 진실이란 걸 알게 될 때도 있지만 이때는 대개 그 선의를 비웃는다. “당신은 운이 좋아서 나 같은 상처를 경험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어떻게 당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내 마음속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겠어?”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 아니 당신은 날 도울 수가 없어!” 경계를 풀고 속내를 다 보여주면 결국 자신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난 원래 한심한 존재야”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알면 모두 난 버릴 거야”라는 강렬한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다. 최선의 방어책은 상대방이 떠나가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떠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외

롭고 허전한 마음을 늘 갖고 살아야 한다. 이를 달래보려 술, 섹스, 약물에 빠져보지만 마음의 벽 속에 갇힌 외로움, 공허감, 수치심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뿐이다.

진정한 위로와 치유가 당기를 바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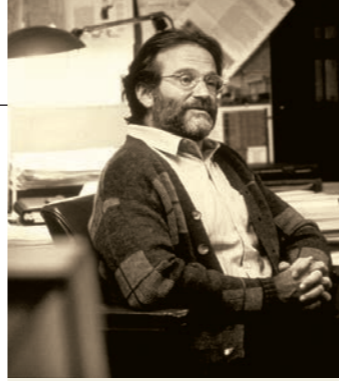
미국 독립 영화의 거장 구스 반 산트 감독의 ‘굿 윌 헌팅’은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받아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주인공과 그의 마음을 열려는 치료자 사이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윌은 수학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밑바닥 인생을 살아간다. 동네의 건달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기, 도박, 폭력 전과로 소년원과 감방을 제집 드나들듯 한다. 그의 천재성은 우연한 기회에 제랄드 램보 교수(스텔란 스카스가드 분)의 눈에 띄게 된다.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할 만한 필즈상을 수상했던 램보 교수는 윌이 자신보다 더 큰 잠재력과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러나 충동적인 윌은 공부에 집중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옥에 가야 할 신세가 된다. 그런 윌에게 램보 교수는 감옥에 가는 대신 자신과 함께 수학 연구를 하면서 상담치료를 받아보자고 권유한다. 감옥에 가기는 싫으니 일단 상담치료를 받아보겠다고는 했지만 윌은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치료자들을 비웃고 조롱한다. 윌의 마음의 벽은 너무나 견고하여 누구도 쉽게 열지를 못했다. 고명하신 여러 치료자가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물러난다. 할 수 없이 램보 교수는 대학 시절 친구였던 손 맥과이어 교수(로빈 윌스암스 분)에게 윌 헌팅의 상담을 부탁하게 된다.

첫 상담시간부터 윌은 손 교수를 밀어낸다. “당신이 정말 날 치료할 수 있어? 내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며 그는 손 교수를 테스트한다. 손 교수가 아내를 잃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윌은 “외로워

보이는데 아내가 도망갔느냐?”라며 손 교수를 일부러 자극한다. 순간적으로 흥분한 손 교수는 화를 참지 못하여 윌의 목을 조른다. 손 교수의 이러한 행동은 분명 치료자답지 못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인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니 치료자라고 관망은 적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다행히도 그토록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손 교수는 윌을 계속 치료하려 한다. 아마도 윌의 이러한 방어적 태도 이면에 있는 연약한 마음을 눈치챘기 때문일 것이다.

It's not your fault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마지막 상담시간이다. 불행했던 과거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윌이 피하려 하자 뜻밖에도 손 교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 학대 경험을 먼저 이야기한다. 갑작스러운 손 교수의 이야기에 윌은 순간 당황한다. 쇼 교수가 어린 시절 경험한 트라우마가 자신이 경험한 트라우마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어. 늘 고주망태였지. 술에 취해 누군가를 팻 생각만 하는 사람 같았어. 난 엄마와 동생이 맞지 않게 하려고 먼저 덤벼들었지. 반지를 끼고 있는 날은 더 재미있었어.” 손 교수의 이야기가 끝나자 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 남자는 늘 탁자 위에 렌치와 몽둥이와 핵대를 올려놓고 이 중에서 선택하라고 했었죠. 난 렌치를 선택했어요. 할 때까지 해보란 심정이었죠.” 여기까지 이야기하고는 윌은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얼떨결에 과거 이야기를 꺼냈는데 상상 이상의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수치심이 물려오니 본능적으로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노련한 치료자인 손교수는 윌에게 다가가면서 다음과 같이 부드럽게 속삭인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It's not your fault)
“(무슨 소리야? 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며) 네. 알아요.”
“애야, 잠깐 날 똑바로 바라볼래.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시시껄렁하다는 표정으로) 안다니까요.”
“네 잘못이 아니야.”
“(이번에는 치료자를 노려보면서) 글썽 안다니까.”
“아냐. 넌 몰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안절부절못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알아요.”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좋아요. 알았어요. (이제 그만 해요. 괴로워요.)”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고개를 숙이고 침묵, 일촉즉발의 상황)”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울먹이며) 제발 성질나게 하지 말아요.”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치료자를 강하게 밀쳐내며) 성질나게 하지 말란 말이예요. 선생님만이라도.”
“네 잘못이 아니었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
“(부드럽게 주인공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네 잘못이 아니었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오열하다가 치료자를 부둥켜안는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가만히 끌어안아 준다.)”

손 교수는 윌에게 무려 10번이나 네 잘못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한다. 왜 손 교수는 한 두 번만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뻔한 말을 굳이 열 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했을까? 어린 자신이 양부모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한 것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엄마 혹은 동생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심을 윌은 오랜 시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왔을 것이다. 그 당시 어린 윌로서는 폭력적인 양아버지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 폭력 사건의 잘못은 분명 양아버지에게 있다. 혹은 어린 윌을 끌어안고 집에서 도망쳐 나오지 못한 엄마에게 있다. 그런데 윌은 그 당시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한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아니 그런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부끄러움은 강렬한 신체의 반응이다. 부끄러움은 누군가의 비난과 공격에 대한 자연적인 방어기제로 거의 얼어붙는(freezing) 것과 유사한 신체의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강렬한 부끄러움에 압도되면 당사자의 전전두엽은 완전히 기능이 마비된다. 전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없다. 영화 속에서 보면 치료자인 손 교수가 2번 정도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했을 때, 주인공 윌은 “그래요, 알아요.”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그러나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언정 윌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손 교수는 직관적으로 알아채고 있었다. 그래서 손 교수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 따뜻한 위로의 말에 마침내 윌의 방어벽은 무너져내리는 순간, 오랜 세월 억눌려 왔던 강렬한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이 표출된다. 진정한 수치심의 치유는 관계의 연결감(connectedness) 속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명장면이다.

PS. 실제로 수치심 치유가 2, 3분 사이에 드라마틱하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수치심을 꺼내 놓아도 관찰을 만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연결감이 생기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걸 빨리 건너 뛴 지름길, fast track은 아직 없다.

스마트폰 없이도 즐거웠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학교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둘러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장난감을 사던 곳. 오락기 앞에 쫓그려 앉아 게임을 하다가 엄마한테 붙잡혀 가던 그곳....
누구에게나 학교 앞 문방구는 추억의 장소다. 유년시절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공간으로 시간 여행을 해 보자.

추억이 되어 돌아온 토이스토리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 유년시절의 그리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게 하는 기억, 즉 '추억'은 지나온 그때 그 시절의 설렘을 불러일으킨다. 오락, 만화, 영화, 음악, 장난감, 놀이터, 친구, 음식까지 이 모든 것들로 채워진 기억들은 애뜻한 추억이 되고 한다. 1990년대에 유년기를 보낸 사람이라면 당시에 지금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과는 또 다른 장난감을 열심히 가지고 놀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당장 떠올리려고 하면 생각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말해주면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추억의 장난감이 있다.

'다마고치'는 일본의 완구 제조회사인 반다이사가 발매한 전자완구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게임이다. 세 개의 버튼으로 다마고치에게 음식을 주거나 다마고치와 놀거나 배설물을 치워주거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 조그만 달걀 모양의 게임기라서 항상 휴대할 수 있었다. 1996년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으며 국내에서도 아이들이 중독 현상을 보여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다.

'따조'는 1995년경 치토스, 썬칩 등 오리온그룹 과자 안에 함께 들어있어 큰 인기를 끌었다. 따조는 동그란 플라스틱 딱지로 학생들 사이에선 일명 놀이의 필수품이었다. 9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닌 이들이라면 따조의 구부리는 탄성을 이용해 상대의 따조를 뒤집는 이 놀이를 모르는 이 없을 것이다.

'만득이'는 풍선에 녹말가루가 들어있는 장난감이다. 말랑말랑한 촉감으로 계속 만지고 싶게 하는 이 장난감은 당시 초등학교생들에게 최고의 장난감이었다. 요즘으로 치면 액체 괴물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WOW!

맛의 신세계! 100원의 행복 불량식품

새콤달콤하고 쫄깃쫄깃한 게 그저 최고였던 어린 시절, 불량식품은 아이들 입맛에 딱 맞는 군것질거리였다. 그리고 수십 개의 불량식품으로 가득하던 학교 앞 문구점은 그야말로 동심의 천국이였다. 대부분 100원, 200원 정도거나 비싸 봐야 300원 정도였던 불량식품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다.

다양한 방법과 나름의 노하우로 먹는 재미가 으뜸이었던 '아플로'. 한 봉지에 여러 개의 빨대가 들어있는 모습을 연상시키던 아플로는 현재 아플로라는 이름 대신 아팻치라는 이름으로 불량식품계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별한 무언가는 없지만 한 개씩 집어서 입으로 쪽쪽 빨아먹는 재미와 입안에 퍼지는 달콤함이 당시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플로를 반으로 나눠 위아래로 한 번에 빨아먹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밑에서부터 위까지 한 번에 쪽 빨아먹는 방법도 많이 이용됐다. 맥주 맛은 하나도 나지 않았음에도 마치 맥주를 먹는 척 너스레를 떨었던 '맥주 모양 사탕'도 있다. 당시 맥주 사탕에는 진짜 맥주가 들어가서 먹으면 취한다는 루머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진실처럼 파다하게 퍼져 있어서 사탕을 먹으며 취기가 올라온다고 허세를 부리는 친구들도 여럿 있었다. 자매품으로 헛바닥을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물들이는 손바닥 모양의 페인트 사탕은 맛도 맛있지만 헛바닥에 사탕 색이 물드는 것이 재미있었다. 입속에서 순식간에 녹아 없어졌던 '테이프'는 실제로 테이프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다. 테이프 과자는 노란색, 하늘색 등 색깔 별로 인기가 좋았다. 먹는 방법은 테이프를 뜯듯이 먹거나 끊지 않고 입안에서 녹여가며 먹는 방법이 있다. 혀에 닿자마자 바로 녹아내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다 보면 어느새 테이프 하나를 다 먹어버리게 된다. 입안에 테이프 과자를 넣으며 '나 진짜 테이프 먹는다'라고 장난치는 친구들이 많았다. 이 외에도 짭조름한 맛이 중독적이었던 '차카니'와 '라면짱', 알록달록 엄청 긴 젤리 '줄넘기', 불량식품 중에서는 비싼 편이었지만 봉지 가득 들어있던 '감자알 칩', 봉지째로 부어 먹기도 했던 '피들이', 먹고 나면 이빨이 아팠던 '콘 팡', 검지에 끼고 한참을 먹었던 '보석반지캔디' 등.

조립 로봇부터 공기, 학 종이, 딱지, 학용품과 장난감 등 참 많은 것으로 꾸며져 있던 문방구.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면 초등학교 앞 문구점으로 가보자. 세월은 지났지만 변함없는 흔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군것질거리와 장난감 있으니 말이다.



HAPPY

CANDY

Sweets

FUN

1인 미디어 시대 ‘인플루언서’가 온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SNS를 기반으로 하여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중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팔로워들과 친밀한 상호 작용을 통해 높은 신뢰도를 자랑하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알아본다.

작은 고추가 맵다, 이제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시대

인플루언서는 소위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뜻한다. 과거에는 예술 분야의 유명 작가, 연예인 등을 인플루언서로 여겼지만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누구나 인플루언서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인플루언서의 유형도 구분된다. 수십만~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를 메가 인플루언서, 수만~수십만 명에 이르는 팔로워를 확보한 사람들을 매크로 인플루언서, 1000명~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부른다. 국내 메가 인플루언서로는 키즈 크리에이터 헤이지니, 게임 크리에이터 대도서관, 뷰티 유튜버 씬님, 이사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해당 분야에서 워낙 영향력이 있다 보니 이들이 내는 입소문만으로 추가 구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런 현상에 주목한 것은 광고업계다. 과거에는 메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만이 크다고 여겼지만 현재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영입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Influencer Marketing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마케팅

기업이 구독자가 수만 명이 넘는 메가, 매크로 인플루언서보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예산 문제이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할 경우 유명 인플루언서들보다 낮은 예산으로 광고할 수 있다. 홍보는 비용과의 싸움이다.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제일 큰 화두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



과를 누릴 수 있다면 그 누가 마다하겠는가. 또한 큰 인기를 누리는 스타 인플루언서와는 달리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소비자들에게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반인으로 다가갈 수 있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SNS에서 자신들의 일상이나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구독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대중은 소비자 관점에서 제품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보면서 더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팔로워의 ER(Engagement Rate) 지수도 무시할 수 없다. ER 지수란 팔로워들이 좋아요, 공유, 댓글 작성 등 홍보 내용에 반응하는 비율을 뜻한다. 팔로워가 많은 메가, 매크로 인플루언서보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ER 지수가 몇 배 많다는 조사결과도 그들의 영향력을 입증한다. 즉 팔로워 수 대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메가 인플루언서보다 팔로워들의 충성도가 높은 편이며 이를 통해 고객들의 반응을 끌어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해당 카테고리 영역에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브랜드와 친숙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훨씬 더 많은 전환, 즉 높은 매출을 가져다줄 수 있는 광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향력으로 구분한 인플루언서 유형



01

메가 인플루언서

연예인, 셀럽, 유명 크리에이터 등으로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

02

매크로 인플루언서

수만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가입자(회원)나 구독자를 확보한 온라인 카페, 페이스북 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채널 등의 운영자

03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천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개인 인플루언서

04

나노 인플루언서

수백, 수십 명의 팔로워를 확보한 개인 블로거 또는 SNS 이용자



※자료: 소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미국 시장 진출 전략(KOTRA, 2017.9)

그렇게 그들은 유니콘이 되었다

독일 배달앱 '딜리버리 히어로' 창업자 니클라스 외스트버그

스마트폰이 보급된 지 10년 만에 음식 배달 문화는 배달앱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다.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라도 음식을 주문해 먹을 수 있는 편리함을 누리자 소비자들은 열광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배달앱을 구축하여 글로벌 성공 신화를 쓴 이가 있다. 바로 '딜리버리 히어로'의 니클라스 외스트버그이다.

D e l i v e r y · H e r o



독일 배달의 영웅, 딜리버리 히어로의 시작

지금은 세계 최대의 배달 네트워크를 구축한 기업이 니클라스 외스트버그는 공대 컨설턴트 출신이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 컨설팅에 따분함을 느끼던 외스트버그는 2007년 온라인 피자 주문 네트워크를 구축해 곧바로 배달 시장의 선두주자가 됐다. 방법은 지금의 딜리버리 히어로와 다르지 않았다. 동네 피자 배달점을 한데 묶어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간편함을 제공한 것이다. 지역적 특성도 성공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경우 유명 브랜드 계열의 대형 체인점이 피자 배달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스웨덴 사람들은 배달 음식을 시킬 때 동네마다 자리 잡은 작은 가게를 선호했다. 외스트버그는 여기에서 성공 가능성을 내다보고 30세에 회사를 나와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다. 지역 현지의 음식점이 발달한 유럽 전역에서 이 사업모델은 통했다.

현재 딜리버리 히어로는 독일 베를린에 본사가 있으며 창업 6년이 지난 현재는 총 53개국 20만 개가 넘는 음식점을 파트너사로 보유 중이다. 직원 수는 6000명이 넘는다. 미국, 아시아, 호주, 중동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국내 시장에도 진출해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2012년 6월 요기요를 설립했고 2014년 말에는 배달통을 인수했는데, 요기요와 배달통 모두 국내에서 자주 이용하는 앱이지만 실제 이 회사가 딜리버리 히어로의 자회사인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성공 요인

외스트버그는 딜리버리 히어로로 창업한 이후 사람들의 배달 음식 주문 습관을 빠르게 바꿔놓았다. 앱만 실행하면 등록된 배달음식점 목록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 수백 장의 전단지 내 손안에 들어와 있는 셈이다. 거리와 예상시간, 비용, 고객 후기 등을 고려해 음식을 선택하고 모바일 결제까지 마치면 주문이 완료된다. 5번의 터치로 음식 주문 완료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배달 음식 전단지들도 앞으로 사라질 모습 중 하나다. 모바일로 주문하는 각종 배달 앱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이제 음식 주문도 스마트한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딜리버리 히어로의 주수입은 이렇게 해서 주문이 발생하면 음식점으로부터 일정 부분 수수료다. 음식점이 배달 플랫폼에 주문과 배달의 역할을 맡기고 수수료만 부담하면 음식점으로서는 고객에게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집중할 수 있다. 고객 확보에 용이해지는 셈이다. 고객으로서도 주변에 어떤 음식점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점별 평점을 통해 좋은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정보의 검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한 고객들이 직접 서비스 구축에 동참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결국 고객과 음식점이 모두 만족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셈이다.





고요한 서사를 위한 세계의 숲 탐험



오래전부터 인간은 숲에서 매우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 한자를 봐도 알 수 있다. 쉼 ‘휴(休)’자를 보면 인간이 나무에 기대 있는 모습이다. 휴식은 인간이 나무에 기대어 쉬는다는 의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휴식과 치유를 선사하는 숲, 국내를 넘어 세계의 숲은 어떤 곳이 있을까?



독일 라인하르트 발트

헤센주 동북부에 위치한 라인하르트 발트는 산림욕을 즐기는 이들의 발길을 끄는 독일 내 자연 명소다. 무엇보다 독일을 대표하는 동화작가 그림 형제의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배경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숲속 한가운데에는 공주가 잠들었던 자바부르크(Sababurg)성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자바부르크성으로 가는 옛길은 수령이 200년 이상 되는 참나무들이 길옆으로 줄지어 서 있어 장관을 이룬다.



벨기에 할레르보스 숲

브뤼셀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할레르보스 지역에는 요정이 나온다는 할레르보스 숲이 있다. 드넓은 삼림 지역인 할레르보스 숲은 계절마다 파란색 또는 보랏빛으로 자연이 빚어낸 색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울창한 세쿼이아 나무들 사이로 블루벨꽃이 숲 전역을 뒤덮으면 숲 전체가 보랏빛으로 물들며 장관을 연출한다. 할레르보스 숲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도보 여행으로 1.8km, 4km, 7km 코스가 있어 자신의 체력, 여행 일정에 맞춰 선택하면 된다.



뉴질랜드 와카레와레와 숲

뉴질랜드 로토루아시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삼림공원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이 원산지인 세쿼이아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1901년에 여러 가지 자생 나무와 외래종 나무의 조림을 연구하기 위한 시험장으로 조성되었다. 숲속 트라이앵글이라는 곳에 위치한 산악자전거 파크에는 자전거 트랙이 마련되어 있다. 산악자전거 전문가들과 힘을 합해 조성한 이 파크는 다양한 코스의 트랙으로 산악자전거 애호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친환경 사무용품으로 꾸미는 그린오피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내듯 친환경 운동도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룬다. 사무실에서 무심코 배출하는 폐기물을 인식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소한 습관부터 고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친환경 제품을 소개한다.



철심이 필요 없는 에코 스테이플러

한번 쓰면 버리게 되는 스테이플러 심은 사무실 쓰레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에코 스테이플러는 심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아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 영국 회사 에코존(Eco-zone)이 개발한 에코 스테이플러는 금속심 없이 구멍을 뚫어 소량의 종이를 묶어 주는 도구이다. 매우 단단하게 고정해 주기 때문에 종이를 찢지 않는 이상 종이가 분리되지 않는다. 한 번에 세장까지 밖에 사용하지 못해 기존 스테이플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환경을 지키는 데에 작은 한걸음이 되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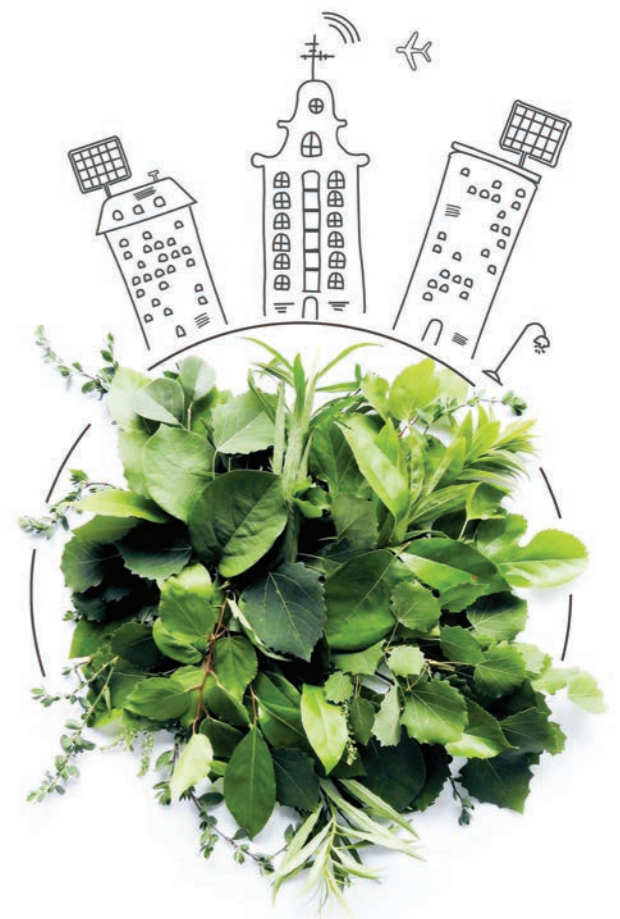
돌로 만든 종이 미네랄 페이퍼

‘돌종이’라고 불리는 미네랄 페이퍼는 대만의 한 화학회사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며 전 세계로 알려졌다. 미네랄 페이퍼는 석회가루와 폴리 에틸렌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 만든 용지로 물에 젖지 않는다. 게다가 벌목이 필요 없고 종이를 희게 만드는 표백제가 쓰이지 않아 친환경 종이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일반 종이 1톤을 미네랄 페이퍼로 대체하면 나무 20그루와 물 95리터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화학약품이 닿거나 오래 보관해도 종이의 변질이 적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물만 있다면 어디서든 충전하는 물건전지

물건전지는 물만 넣어 사용하는 건전지이다. 물 외에도 술이나 주스, 타액이나 분뇨 등 액체 대부분이 전력을 생성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 한번 물을 넣으면 약 10년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 배터리가 소진되면 다시 물을 넣고 전기를 생성할 수 있고 여러 번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유해 물질이 없기 때문에 사용 후에도 일반 전지보다 친환경적이며 사용을 추천하는 기기로는 소형 라디오, LED 회중전등, 책상 시계, 벽시계, 리모컨, 디지털 타이머, 계산기 등이 있다.



반려견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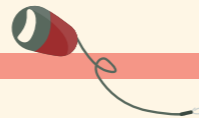
반려견을 맞이하는 가정이 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유기견도 함께 늘고 있다. 유기견은 보호소에 맡겨지거나 구조되어도 일정 시간 내에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를 피하기 어렵다. 한때 주인의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들을 위해 유기견 입양 방법을 안내한다.



유기견 입양처와 입양 절차

유기견은 유기견보호센터나 비영리단체 등을 통해 입양할 수 있지만 근처에 보호소가 없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입양을 진행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유기견 입양에 대한 정보와 해당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 현황, 사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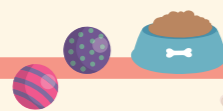
유기견 입양 절차는 보호소에 따라 다르다. 공통적으로 입양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양육 능력이 있는지 심사한다. 입양이 결정된 이후에도 보호단체는 모니터링을 거치는데, 이는 유기견에게 또 한 번의 아픔을 주지 않으려는 조치이다.



유기견 입양 시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입양할 유기견이 보호소에 들어온 이유, 학대 여부, 입양 여부를 알아두는 것이다. 반려견의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강아지의 문제행동을 이해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유기견의 건강상태에 대해 알아두어야 한다. 건강검진 여부, 구충, 필수 예방접종,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 문의하면 앞으로 얼마나 관리가 필요한지 준비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강아지의 성격이나 훈련상태를 미리 파악한다면 강아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 유기견 입양 홈페이지

종합유기견보호센터 www.zooseyo.or.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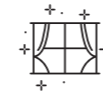
나도 모르는 사이 다이어트를 망치는 습관

식단을 조절하며 칼로리 섭취를 낮추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도통 연초에 계획했던 다이어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노력 대비 체중계 눈금은 계속 제자리라면? 그렇다면 평소 의식하지 않고 하는 사소한 습관들을 한번 체크 해 보자.

01

어둠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나요?

아침에 일어난 후에도 계속해서 블라인드나 커튼을 쳐두면 태양이 가져다주는 체중 감량 효과를 놓칠 수 있다. 이른 아침에 햇살을 받는 사람이 햇볕을 전혀 쬐지 않은 사람들보다 낮은 BMI 수치를 보인다고 한다. 태양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동기화하기 때문이다. 태양의 청색광은 체내대사 증진 및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과 인슐린 저항성 개선 호르몬인 아디포넥틴 분비량을 늘려주어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준다.



체중계 위에 자주 올라가나요?

다이어트를 향한 열렬한 의지로 틈만 나면 체중계에 올라가 미세한 몸무게 변화까지 점검하게 된다. 하지만 위와 장에 든 음식물에 따라 체중은 달라지고 화장실에 가지 않았다면 체중은 더 무거울 수도 있다. 다양한 이유로 체중 감량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매일 체중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오히려 체중 감량을 위한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 매일 체크하는 것보다는 주마다 체크하는 것이 좋으며 체중을 재기 전에 무언가를 먹거나 마시지 않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그리고 아침에 재는 것이 좋다.

02



03

저지방 식품 및 다이어트 식품만 섭취하나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식사 방법이다.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저지방 식품과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표기된 것들만 먹게 된다. 하지만 식품에 표기된 저지방 식품 및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문구는 마케팅 전략으로 실제로 일반 제품만큼 많은 열량과 설탕을 함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품을 구매하기 전 항상 성분 목록을 확인해야 하고, 자연식품을 먹는 것이 좋다. 포장된 식품은 꼭 영양 성분 표시를 확인한 후 구매하자!



함께하는 희망태양광발전소 지역에 희망을, 기업에 희망을!

(주)코스텍 이성기 대표

한국서부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정책의 하나로 자동차·조선기자재 연계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주식회사 코스텍(이하 코스텍)은 군산지역 경제와 지역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본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있다.



코스텍, 지역과 기업의 상생을 도모하다

한국서부발전은 군산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함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및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로 급격히 기울어진 군산지역 경제를 위해 태양광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는 자립기반 조성을, 대기업인 한국서부발전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REC)를 확보할 수 있는 본 프로젝트에는 군산의 강소기업 코스텍이 함께하고 있다.

코스텍은 차량 금속물을 대체할 수 있는 고성능 플라스틱을 이용해 고품질의 친환경적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업체이다. 자동차 전장 관련 솔루션, 모듈화된 플라스틱 제품성형 기술, 종단의 하드웨어 기술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이용한 부품은 가벼운 무게와 성능을 모두 충족시키며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

군산은 201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한국서부발전은 군산지역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본 사업을 시행하기로 발표했으며 코스텍은 지역과 기업의 상생에 앞장서서 뜻을 함께하고 있다. 코스텍은 한국서부발전과 '성과공유형 동반성장사업'을 통해 '군산 1호 태양광 희망발전소(300MW)'가 되었으며 앞으로 총 20개 회사와 희망의 걸음을 함께할 것이다.

66 코스텍은 한국서부발전과 성과공유형 동반성장사업을 통해 군산 1호 태양광 희망발전소가 되었다



성과공유형 동반성장사업, 희망태양광발전소 1호

한국서부발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가 있는 발전사업자로서 연간 약 360만 REC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단순 일회성 후원에 그쳤던 기존 동반성장사업의 틀을 탈피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발전사업자로서의 본업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립기반 조성 지원'과 'REC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이번에 준공된 희망발전소 1호(300kW)를 시작으로 5월 중 4개의 발전소(총 3,068kW)가 추가적으로 준공될 예정이며, 향후 총 20개사가 참가한 이번 사업이 모두 완료될 경우, 약 8MW의 신재생에너지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텍은 희망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한 것을 계기로 한국서부발전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동차산업뿐 아니라 발전산업으로도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 발전소 O/H 기간에 두 차례 초청받아 처음으로 발전설비는 물론, 생생한 현장을 보면서 국산화를 위한 아이템도 발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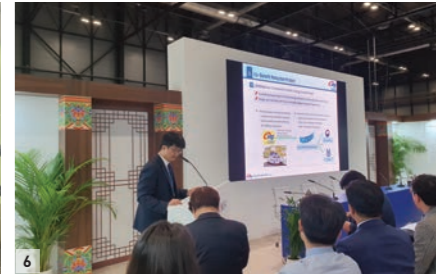
이성기 대표는 "타 산업 분야임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한국서부발전 동반성장부서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서부발전 상생물에 우리회사 제품이 추가되는 등 앞으로도 우리와 같은 협력업체와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함께 개발도 해 나가면 좋겠다"며 밝은 미소로 답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앞으로도 국내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서의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돈독히 다져나가며 중소기업과 공존할 수 있는 신규 사업모델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WP NEWS

Korea Western Power News 2020 3+4



01 온라인 모니터단 운영으로 대국민 소통 활성화

한국서부발전(이하 서부발전)은 1월 9일, 국민 40명을 선발하여 2019년 말 4주간에 걸쳐 운영한 ‘온라인 국민소통 모니터단’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활동단원 5명에 대해 시상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니즈를 반영하고자 구성한 ‘온라인 국민소통 모니터단’은 경영공시를 포함한 서부발전의 정보공개 콘텐츠와 SNS 등의 뉴미디어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보고 각 분야별 장단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 설문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통해 환류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모니터단원들은 4주간의 활동을 통해 국민제안방식의 편리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친근한 기업이미지 형성을 위한 뉴미디어 활용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개선 포인트를 제안하였으며, 서부발전이 이러한 소통채널 활성화 노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길 희망했다. 우수상을 받은 안찬호 단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4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서부발전의 대국민 소통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공식 모니터단 활동은 끝나지만 이후에도 꾸준히 한국서부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부발전은 모니터단의 우수 제안사항을 정보공개 및 온라인 홍보채널 운영에 즉시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소통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2 서부발전 라오스법인과 청년봉사단, 라오스 봉사활동 시행

라오스 현지법인과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 39기 라오스A팀은 1월 10일, 라오스 루앙프라방 사녹초등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제 기증 행사를 개최했다. 월드프렌즈 청년봉사단은 대학생들이 봉사를 통해 나눔과 배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내외 봉사 활동을 주관·시행하는 단체로서 이번 39기 라오스A팀은 소외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나무식재 및 초등학생 체험교육을 시행하였고 서부발전과 함께 후원행사도 진행하였다. 서부발전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라오스 현지 지역주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3 사내벤처, 축산 약취저감 및 축분 퇴비자원화 시연회 개최

서부발전 사내벤처 (주)셀바이오는 1월 14일, 서산축협센터에서 지역 축산관계자 및 서산·태안 관련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연 휴믹물질(생태환경복원물질)과 바이오기술로 제조한 친환경 약취저감제 「WP-녹스다운」을 이용한 축분퇴비 자원화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시연회에 참석한 축산관계자는 관능검사를 통해 축산분뇨에서 악취가 거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고 평가하였으며 서산축협조합 최기중 조합장은 “축산시설 내 암모니아 등 약취 저감을 통해 퇴비가 자원화되는 효과도 가진 만큼, 제품 활용이 활성화되어 농민과 축산인이 상생 협력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04 태안발전본부-단국대학교병원,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한 일터 만들기』 협약 체결

서부발전은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맞춰 서부발전과 협력사 직원 모두가 쾌적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서부발전노동조합 태안지부, 단국대학교병원 3자가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한 일터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부발전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외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형성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생협력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발전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05 2020년 안전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서부발전은 1월 14일, 안전보건관리 주요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구현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자와 노동조합 위원들을 대상으로 「2020년 안전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노동조합 관계자는 회사의 안전보건 정책에 대해 손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노·사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모든 근로자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 무결점의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현장 노동자와의 소통채널을 더욱 활성화하고 현장밀착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사가 하나가 되어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6 발전사 최초, 개도국 대상 기술메커니즘 지원 전문기관 지정

서부발전은 2월 3일, 발전공기업 최초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기술메커니즘 이행기구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이하 CTCN)로부터 기술지원 전문기관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CTCN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기술협력과 기술개발·이전 촉진을 위해 2013년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하면 CTCN이 전문기관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번 서부발전이 그 전문기관 자격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CTCN 전문기관 승인은 개발도상국에 적용 가능한 기후 기술개발 및 이전과 관련된 사업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총 90개국에 회원 기관이 분포되어 있으며 연구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서부발전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 수행 역량과 개도국 대상 사업개발 실적 등 지속가능한 기여가 인정되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게 되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UN CTCN 전문기관 지정 승인을 통해 다시 한 번 국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분야의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으며, 이러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기후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WP NEWS

Korea Western Power News 2020 3+4



07 스마트 모바일 영상관계 시스템 구축 및 현장교육 완료

서부발전은 1월 21일, 현장에서 활용 중인 스마트 모바일기기를 통해 재난, 발전설비 고장 등 위기상황 발생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스마트 모바일 영상관계 시스템」의 전사 구축과 순회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중장기 4차산업 기술혁신 로드맵」에 따라 기술경쟁 우위 선점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발·도입 완료한 영상관계 시스템 외에도 QR코드와 GENI(발전설비관리시스템) 정보를 연계한 발전현장 설비정보시스템 개발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08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서부발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월 12일, 태안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고, 태안사랑 상품권 전달식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노동조합 및 직원들과 함께 태안군 소재 서부시장을 찾은 김병숙 사장은 오병영 태안군 사회복지협의회장에게 5천만원 상당의 태안사랑 상품권을 직접 전달하였고, 노사가 합동으로 태안사랑 상품권을 이용하여 지역 내 사회배려계층 지원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서부발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적극 동참, 주민들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등 예방물품 배부와 예방수칙이 담긴 홍보 전단지 배부하는 등 전사업소에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09 지역 화훼농가와 함께하는 가정의 날 꽃 나눔 행사 시행

서부발전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 여파로 학교 입학식과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판로를 잃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의 판매촉진에 앞장서고자 화훼협회와 직원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이벤트를 개최했다. 지난 2월 21일, 서부발전 본사 1층 로비에 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 화훼농가와 함께하는 ‘가정의 날 꽃 나눔 행사’를 시행했다. 이번 행사로 서부발전 직원들은 화훼농가의 고충을 함께하면서 동시에 가정의 날 꽃과 함께하는 즐거운 퇴근길을 맞이할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화훼농가는 “현재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꽃 출하 및 판매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서부발전에서 이러한 행사를 마련해주셔서 수급 조절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앞으로도 서부발전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화훼농가의 판로구축 사업인 ‘WP 소셜플라워’를 통해 지역 화훼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서부발전 국정과제추진실은 추후 사내 홈페이지 팝업 공지를 통한 태안사랑 상품권 구매 대행, 전통시장 이용 및 지역상품권 구매 시 나눔마일리지 인정(2만 원/1마일리지) 등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서부공감 3+4월호 이벤트

10년 전 그 이름을 맞춰라!

문제 2010년에 발행되었던 한국서부발전 사보의 이름은 서부발전이 만들어가는 0000 입니다.



이번 서부공감 3+4월호에서는 10년 전 오늘, WP 타임슬립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발행되었던 사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년 전에는 서부발전이 만들어가는 0000라는 이름으로 “최강의 팀워크”, “WP NEWS” 등의 칼럼을 통해 한국서부발전 소식을 전했는데요. 2010년 발행되었던 한국서부발전 사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참여방법

아래 QR코드를 통해 이벤트 응모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세요



당첨자상품

스타벅스 카페라떼 모바일 쿠폰(50명)



기간

2020년 4월 30일까지
응모 가능

당첨자발표

2020년 5월 8일